



특별인터뷰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배기욱

“포천시 발전 위해 교통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

계획수립후 중앙정부 예산 확보하는데 정치적 역량 필요



포천시는 갈수록 교통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상습정체현상으로 외부에서 포천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큰 손해를 보고 있지만 포천 지역간을 이동하는 포천시민들에게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포천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진척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본지는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배기욱(사진) 교수로부터 포천시 교통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들었다. 배 교수는 현재 대진대학교 기획처장, 특성화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중

이다. 배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수요대응형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창출형 교통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말하자면 선 교통인프라구축 후 도시 개발이다.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교통망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양주시와 포천시를 연결해야 한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지하철 1호선이 오고 가는 양주 덕정역과 포천 송우리를 동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 히로시마시의 경우 산골짜기를 기어올라가는 방식으로 중앙교통시스템을 구축했다. 양주와 포천을 연결하는 것도 이같은 중앙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터널로 가는 방식, 부분터널과 부분고가 등으로 가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대진대학교 스포츠가장장 동영을 경유하고 있어 창동역 주변의 업소들이 환황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동역 주변의 업소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경기활성화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배 교수는 실제로 포천에 대용량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4호선과

7호선 등이 들어오기에는 난제가 많다. 그러나 1호선 전철이 개통된 양주시 덕정역과 포천시를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이곳에 산악형 신교통시스템을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지역간 균형 발전을 말할 때 거시적인 안목에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내에서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관계가 개선되는 도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서간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관과 학계,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각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성격이라고 한다. 배 교수는 시민단체가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특정 정치인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는 도움이 안된다. 순수한 시민단체를 구성해 이같은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현재 포천시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배 교수는 서울-포천간 도로를 대체하는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고 지역내부 우회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동서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울과 연결할 수 있는 전철 7호선과 4호선을 끌어오는 노력이 더뎌야 덕정신도시와 광역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 시도해야 한다. 내부우회도로는 경북대학에서 송우리가 지 새 노선을 개설해야 한다. 부인터 사거리 문제도 소관부서만 따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극심한 정체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무부서에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획수립과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부인터사거리 교차로 공사에는 약 150~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배 교수는 전철유치문제와 광역교통망구축을 위한 예산을 이번 대선정국을 활용해서 계획노선으로라도 확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정치인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포천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한 시민단체와 관련부서의 노력에 정치인들의 힘이 보태져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여 포천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주)위너스

국내 배선기구 기술선도기업으로 우뚝서다



대표이사 김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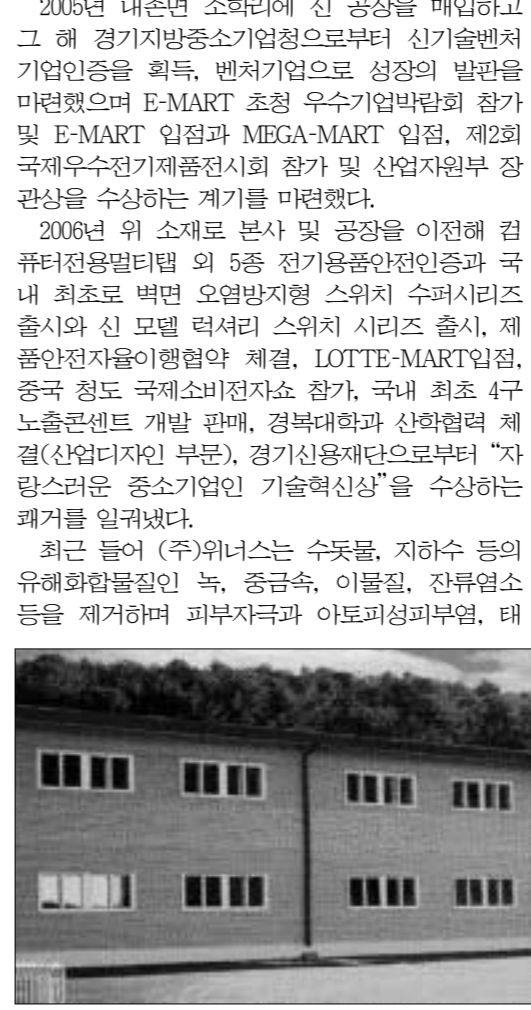
(주)위너스(포천시 내촌면 소하리 375-3 대표이사 김창성)는 '사람·정도·기술·미래'를 경영 이념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주)위너스는 스위치, 멀티탭, 콘센트, LED취침등, T형 멀티탭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배선기구를 생산하며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에 설립된 (주)위너스는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근에는 가전제

철 등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비타민C 사워필터'를 선보이고 있다. 비타민C공급/염소제거 필터, 잔류염소/녹물제거 필터, 녹물제거필터 등 다양한 3종류의 비타그린 사워필터를 출시 판매하고 있다. 비타그린 사워필터에 사용되는 필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무해하다고 인증한 100% 폴리프로필렌으로 생산된 고성능 마이크로 필터로 우수한 여과성능과 긴 수명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잔류염소, 벤젠, 말라티온, Pb, Hg, 트로할로메탄 등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지 않아 품질보증을 인정받았으며 필터통이 투명케이스로 되어있어 제거되는 녹과 이물질 및 중금속 등의 변화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필터는 리필이 가능하며 사용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월 2~3000원의 저렴한 유지비로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비타그린 C필터는 잔류염소도 제거해 주므로 피부보습, 모발건강에 적합한 약산성수를 공급해 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신 분,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민감하신 분,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 분, 매일 목욕을 하는 신생아 및 어린이 사위에 최적이며 설치 시 사워호스와 욕조 수도꼭지 사이에 간단하게 연결해 사용하며 필터도 매우 간

기술과 품질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배선기구 전문 생산 잔류염소 제거·비타민C를 공급해주는 사워필터 신개발

품 리모콘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리모콘 스위치를 개발하였으며 오는 8월중엔 국내 최초로 절로방지형 콘센트를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2005년 내촌면 소하리에 신 공장을 매입하고 그 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기술벤처기업인증 획득, 벤처기업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E-MART 초청 우수기업박람회 참가 및 E-MART 입점과 MEGA-MART 입점, 제2회 국제우주전자제품전시회 참가 및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6년 위 소재로 분사 및 공장을 이전해 컴퓨터전용멀티탭 외 5종 전기용품안전인증과 국내 최초로 벽면 오염방지형 스위치 수퍼시리즈 출시와 신 모델 럭셔리 스위치 시리즈 출시, 제품안전자율이행협약 체결, LOTTE-MART입점, 중국 청도 국제소비전시장 참가, 국내 최초 4구 노출콘센트 개발 판매, 경북대학과 산학협력 체결(산업디자인 부문), 경기신용재단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기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최근 들어 (주)위너스는 수돗물, 지하수 등의 유해화학물질인 녹, 중금속, 이물질, 잔류염소 등을 제거하며 피부자극과 아토피성피부염, 태



(주)위너스(포천시 내촌면 소하리 375-3 대표이사 김창성)는 '사람·정도·기술·미래'를 경영 이념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행복한 보험이야기 3

변액보험이 인기몰이하는 이유

요즘 주가가 2000포인트에 육박하면서 더욱더 펀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펀드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대규모의 공동기금을 전문적인 투자기관이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여 주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이와 유사한 변액보험은 유사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해준과 동시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보장성과 실적배당 이란 2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시장 발전에 발맞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7년 3월말 현재 변액보험의 자산은 총 21조3천623억원으로 1년전 11조8천216억원에 비해 79% 급증했다. 증시 활황이 변액보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식형 변액유니버설(저축형)보험의

1년 평균 수익률은 46.79%, 주식형 변액연금의 1년 수익률도 34.42%로 높은 운용 성과를 기록했다. 최윤석 금호생명 재무관리 팀장은 "변액보험은 운용 능력이 중요한 만큼 1년에 한 차례 운용사의 성과를 판단해 위탁 운용사를 재선정한다"며 "매일 운용사를 재선정한다"며 "매일 운용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내용도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로또를 사는 것과 같다. 로또를 사는 데는 불과 몇 천원이면 된다. 그리고 팽이 나오더라도 몇 천원 정도의 손실이라던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팽이 나와도 다시 투자할 정도의 여유는 있다. 그러나 로또를 사듯 유가증권을 사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의 돈이 투자된다. 사업내용을 잘 모른다면 행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아는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주가 우량주인지, 미래 성장주인지 예

측할 수가 없어 직접투자에는 위험성이 커진다. 변액보험은 직접 투자자 아니다. 머리 복잡한 판단은 자산 운용사에 맡기고 가입초기는 Cost Averaging 효과를 믿고 적립금 쌓는 일에 집중하면서 펀드의 선택과 변경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저금리와 물가 상승의 걱정을 덜어주는 합리적 인 보험이다. 투자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하는 선진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보험금 1억원의 선택할 경우 정액보험은 1억원이 시작이다. 펀드보다 변액보험이 좋은 이유가 또 있다. 펀드를 내마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채권형, 혼합 안정형, 혼합 성장형, 인덱스 혼합형, 주식형과 주식 혼합형 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각 점포를 방문하여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에라도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다. 매월 이자불입과 원금상환을 해

야하는 약관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내 돈을 찾을 수 있듯 언제든지 인출하여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 자금의 여유시 더 투자를 하면 사업비도 전혀 내지 않고 추가금 전액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2년의 약정액 불입 후부터는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보험금 불입을 못했을 시,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납입이 어려울 시에 2회 이상의 연체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실용상태로 되지만, 이 변액보험은 일정액에 따라 실효되지 않고 보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보험 상품이다.



이미정 금호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산업안전사고 예방

압출기 작업중 히터 단자부 접촉에 의한 감전



▶재해발생 개요
○ 0000년 5월 9일 09시경 대구광역시 소재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 압출기로 PVC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중 당일 PVC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압출기 히터 전기 접속부에 접촉, 감전사망한 재해임.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기기계·기구 종전부 방호장치 설치
○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시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충전부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 즉 압출기 히터부 전기접속부(전기충전부)는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보라.

김시민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 대피소, 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으로 각 층면적은 15평임)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1,500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내용을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하다 하여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었다. 김시민씨의 경우 어떻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받을 수 있을까?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나 작으나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 계약을 할 때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음)
- 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인근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실의 경우
지하실은 실지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의 비율로 안 분하여 구분한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한다.

- 계단의 경우
통상 계단에 대하여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 한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2층 면적 중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층 계단 면적을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면적이 넓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과 870-4484~4487/4502~4507

국민연금 Q&A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 안내도 돼 '무보수' 증빙서류 첨부해 납부예외 신고해야

그렇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사용자 부담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급여에서 사용자 원천 공제하여 사업장으로 함께 고지된 보험료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를 적기에 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 3%가 붙으며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연체금 부담도 6%, 9%로 늘어나게 된다. 계속되는 사업장 체납은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강제 징수된다. 법인 대표이사 역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해당하면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단, 무보수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정관(사본)이나 이사회 회의록(의사록) 등 무보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가입은 되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납부예외사유 및 기간은 군입대(병역의무수행기간), 학생(재학기간), 재소자(재소기간), 실직(1년 이내) 등이다. 그러나 납부예외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소득활동에 종사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학 중이라도 개인사업이나 직장에 취직하면, 납부예외사유는 있으나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납부예외신청은 '납부예외 신청서'에 사유 및 기간을 쓰고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